

PORTFOLIO

2024

Emotional design

Design is thinking made visual

스토리를 그리는 디자이너 이지원입니다.

Poster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 Ansan Street Arts Festival
시대정신 The spirit of the times

Branding

하삼동 커피 Hasamdong Coffee

Bookcover

가나 Ghana

Character

몽이와 몽몽이 Mong and Mongmong

Leaflet

알폰스 무하 전시회
Alphonse Mucha : Art Nouveau and Utopia

Albumcover

솔티 Salty

Bookmaking

예술지 예장 Arts magazine Yejang
그림책 Picture books

Ansan Street Arts Festival ASAF.

매년 5월에 열리는 안산거리극축제 ASAF는
안산 시민과 주변 대학 학생들, 해외 초청 공연자들이 어우러지며
야외 공연이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공연 예술 축제입니다.
본 포스터 디자인에서는 길마다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봄날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작업물

TOOL 일러스트레이터, 프로크리에이트

KEYWORD 봄 축제, 거리극, 시민들, 친근함, 분홍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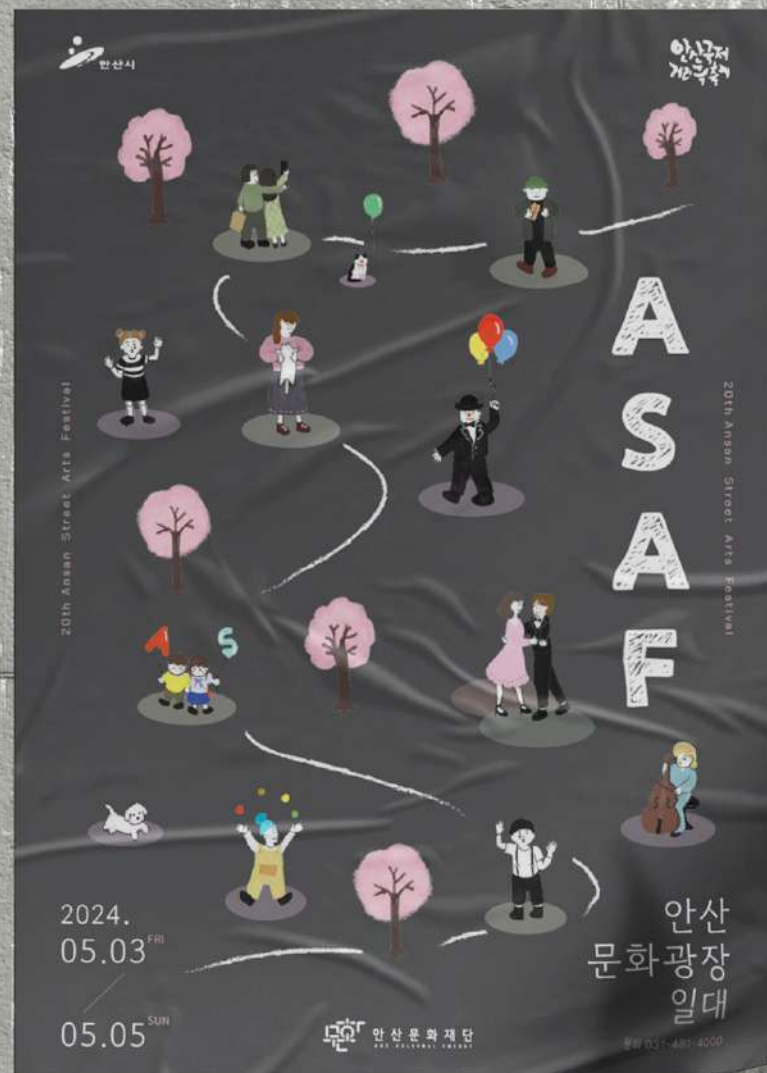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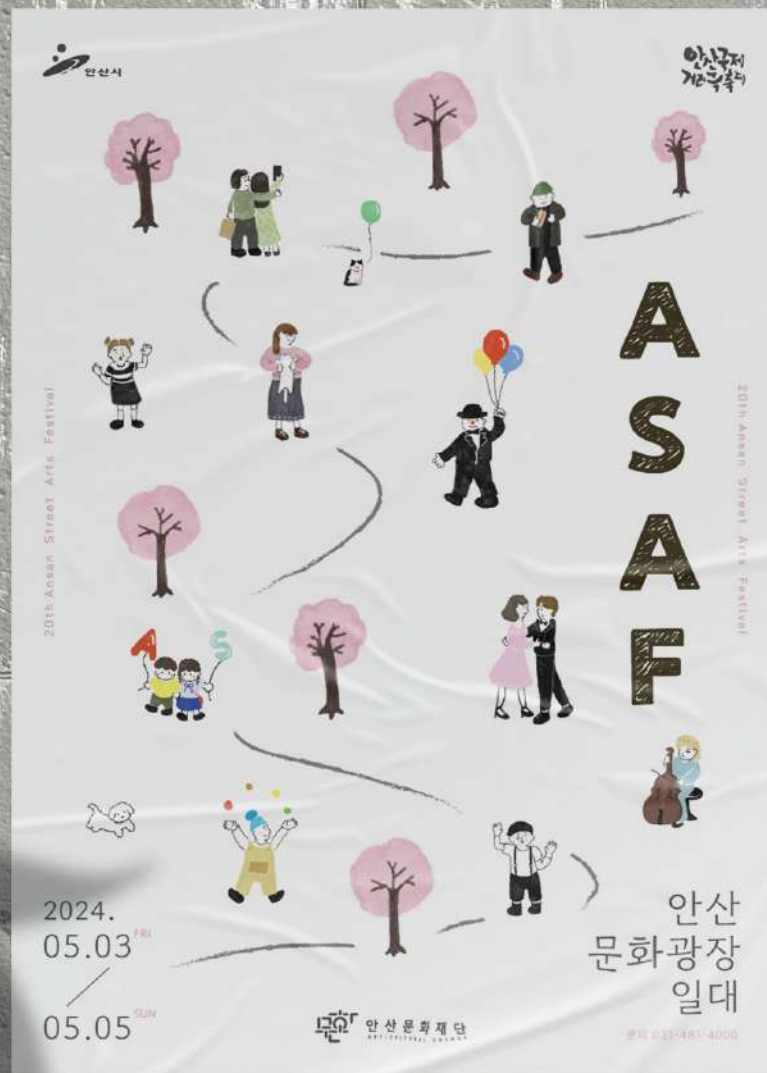
따뜻한 봄 축제

안산 문화광장에 공연자들과 시민들이 한 데 모였습니다. 꽃꽂이와 풍선, 먹거리와 즐기는 사람들, 연인들, 아이들, 동물들. 거리 축제의 특성을 살려 길마다 즐거움이 있는 장면을 정감 있는 일러스트로 나타냈습니다.

밤에도 계속됩니다

밤에는 곳곳에 켜진 불빛이 축제의 낭만을 더합니다. 공연 예술 축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의 따스한 핀조명을 배치했습니다. 밤에도 환하고 즐거운 축제 현장을 표현했습니다.





COLOR ●●●●●

따스한 파스텔톤을 중심으로 벚꽃 나무를 곳곳에 배치하여 봄날의 느낌을 표현했고,
배경색 반전으로 밤낮의 축제 풍경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TYPOGRAPHY

Cafe24 Decoschool **ASAF**

Chakra Petch **20th Ansan Street Arts Festival**

Gowun Dodum Regular 안산 문화광장 일대 / 2024.05. 03





PRODUCT

에코백, 버튼 배지, 마스크테이프, 티켓 등 다양한 축제 기념품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times.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문학과 관련된 기획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전시관의 테마에 맞게 가상 전시 '문학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전시는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작가 100인을 선정하여 활자를 전시장 벽면에 크게 배치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관련 창작물들을 함께 게시합니다.



개인작업물

TOOL 일러스트레이터

KEYWORD 레트로, 신문, 근현대, 타이포그래피



COL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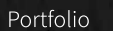
근대문학관의 전시 느낌에 맞게 신문에 인쇄된 듯한 회색 배경을 사용하였고
흑백의 대비로만 글자를 강조하여 장식처럼 배치했습니다.

TYPOGRAPHY

HY견명조 시대정신 文學 時代精神

Gowun Batang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 2024.02.02. 좌측 한글

김현 문학평론가의 글 일부를 발췌하여
긴 줄글 자체를 장식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글귀 자체를 포스터에 그대로 배치함으로써 신
문 같은 느낌을 의도했으며 우측 글자의 세로
배치 형태와 균형을 맞췄습니다.





HASAMDONG COFFEE.

하삼동커피는 최근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는 저가형 커피 전문점입니다.

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삼 고객, 가맹점, 우리 모두가

동 함께 어울리는 곳

한자 조어로 만든 브랜드명의 의미를 살린 친숙하고 단정한 느낌의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하삼동 커피는 한국의 벽돌 주택처럼 누구나 커피를 마시고 가는 공간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개인작업물

TOOL 일러스트레이터

KEYWORD 친근함, 따스함, 편안함, 동양미, 단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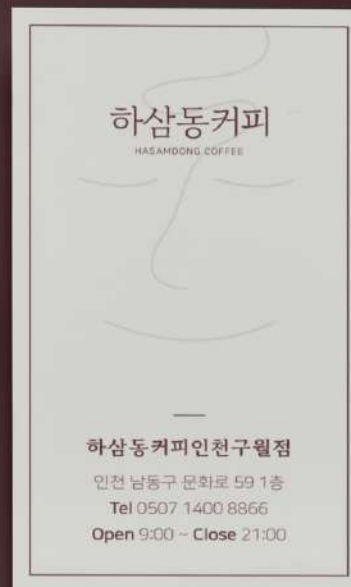
HASAMDONG COFFEE.



웃음이 번지는 우리 동네 커피숍

하삼동커피는 편안함, 친숙함, 따스함을 특색으로 지니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동양적인 이미지를 품은 브랜드 느낌을 살려 한자 서체를 로고에 포함시켰고, 하삼동의 맛있는 라떼를 연상시키는 곡선으로 '웃음이 번지는 맛'을 표현했습니다.





하삼동커피
HASAMDONG COFFEE



LOGO DESIGN



기존에는 시골밥상체를 사용한 단순하고 오래된 느낌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별도의 심벌이 없습니다.

행복한 맛과 웃음을 전하는 하삼동의 의미를 살려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단정한 선으로 표현했으며, 한글서체와 영문 혼합 표기로 가독성을 더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보다 세련되게 디자인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COLOR

한국의 가정집을 연상시키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벽돌색과
기존 · 신규 매장에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는 아이보리색을 사용했습니다.

TYP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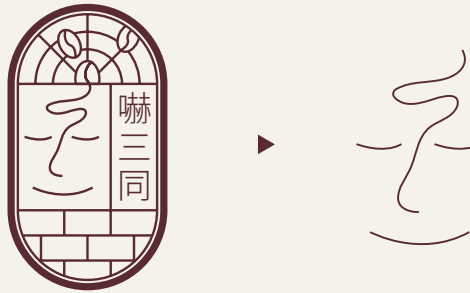
고운바탕 Regular 하삼동 커피
나눔스퀘어 Regular HASAMDONG COFFEE
Noto Sans TC Light 嚇三同



LOGO GRID



VARIATION



로고 요소 분리

로고 프레임 안에 있는 웃는 얼굴을 단순화된 로고로 분리하여 명함, 굿즈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LOR VARIATION



#5A2C30



#F8F8F0



K 100



K 30





Jeong Yongjun Ghana.

표제작 「가나」는 바다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죽은 몸이 되어서야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가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언어 속에서 어렵사리 발음되는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그의 소설들은 어둡지만 낭만적입니다. 초기 소설의 분위기를 살려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올 것 같은 어두운 바다의 느낌으로 리디자인 했습니다.

개인작업물

TOOL 포토샵, 프로크리에이트

KEYWORD 심해, 노래, 파란색, 어둠





기존 북커버

물에 빠진 주인공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 단순하며 얼룩 표현이 의도된 디자인인이 아니라 실제로 책이 낡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어 보완하여 리디자인하였습니다.



두 가지 바다

기존 바다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되 하나는 간결한 선으로, 하나는 영화의 화려함을 살려 두 가지 타입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노래가 된 남자

남자는 깊은 물속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두고 온 사랑과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슬프고 그리운 사랑의 노래를 뒤표지에 담았습니다.

작품의 시적인 느낌을 살려서 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COLOR

짙은 파란은 깊고 어두운 심해를 표현하며
흰색으로 대비 효과를 주었습니다.

TYPOGRAPHY

Gowun Batang 가나 디자인 전체

Book cover Design



노래하는 세이렌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지나가는 사람을 바다에 빠트린다는 신화 속 존재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세이렌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죽음 충동Destrudo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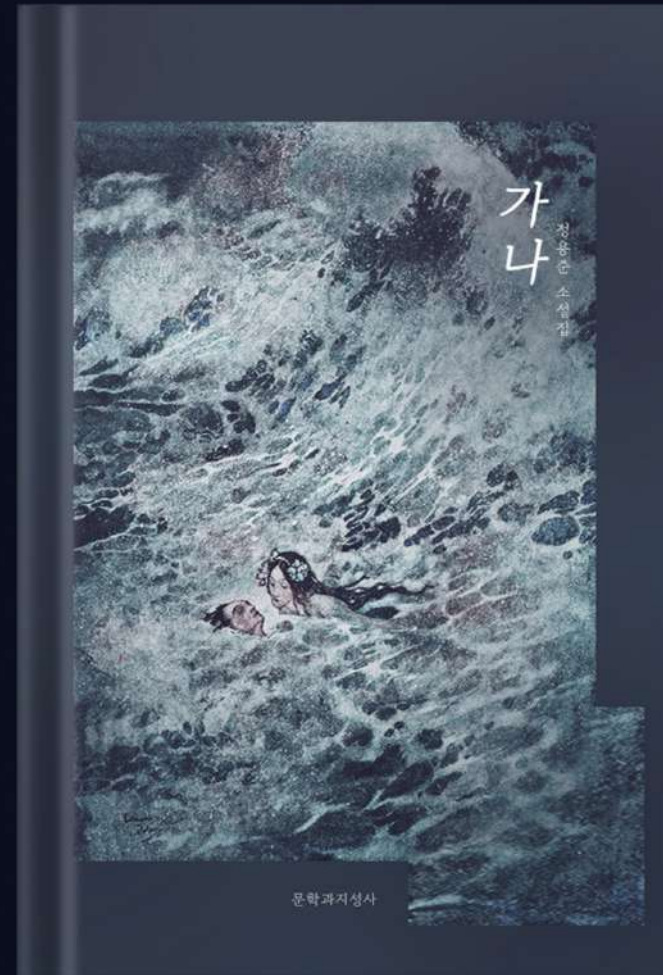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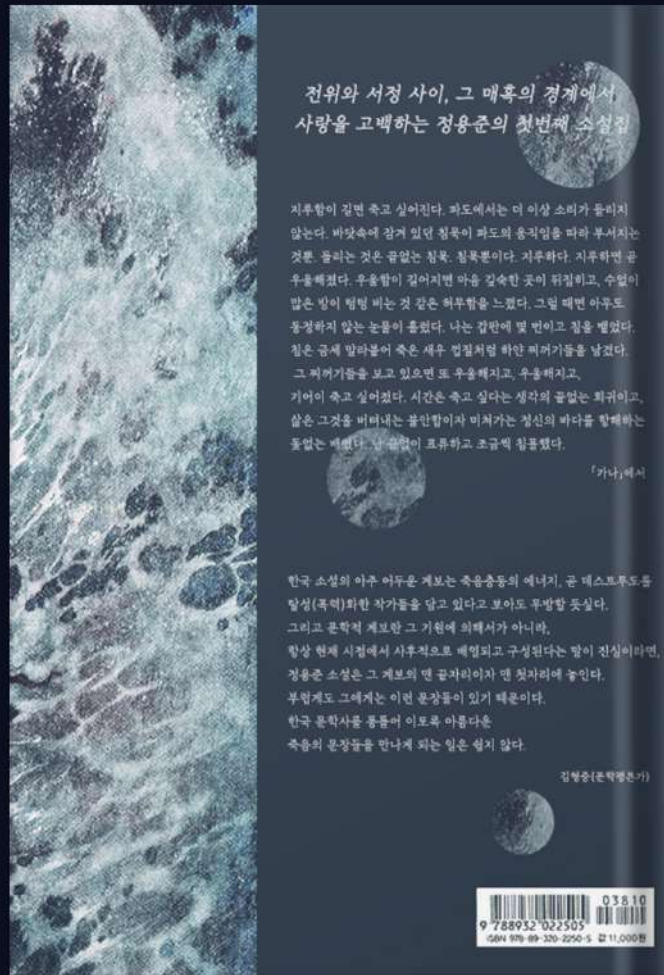
오래된 명화인 에드먼드 뒤흔의 인어공주 삽화를 활용하여 정용준 작가의 소설에 드러나는 죽음 충동 에너지와 바다 이미지를 신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COLOR ●●○

섬세한 영화의 느낌을 집중시킬 수 있는 탁한 파란색을 배경색으로 사용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서체에 대비되는 하얀색을 사용했습니다.

TYPOGRAPHY

Gowun Batang 가나 디자인 전체



Mong & Mongmong.

거제시는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몽돌은 지금까지 거제시의 마스코트였고,

오랜 세월을 걸쳐 둥글게 깎인 돌을 도시의 상징으로

삼는 곳에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거제시 캐릭터 공모 참여작으로 기존의 몽돌 테마를

살리되 오래된 느낌을 탈피하여 한층 귀엽고

친근하게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작업물

TOOL 일러스트레이터

KEYWORD 거제시, 몽돌, 바다, 귀여움, 친근함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 뽕뽕이 (0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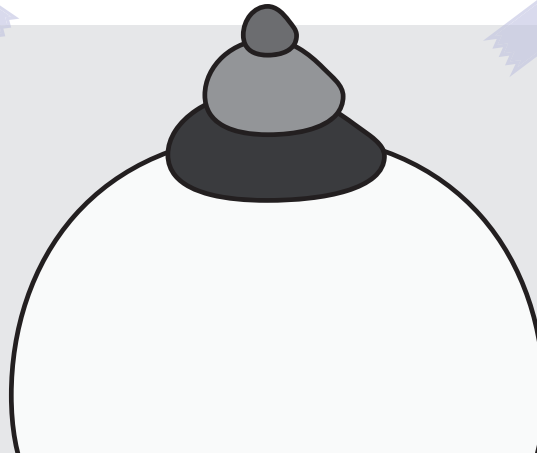
특징: 뽕뽕을 머리에 얹고다님

호기심이 많고 틈만나면

거제시 곳곳을 돌아다님

뽕이에게 연락 주세요!

010-000-0000





BLUE CITY GEOJE

몽이와 몽몽이

Story

몽이는 거제도의 가장 오래된 몽돌입니다. 몽돌 해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둥글게 깎인 몽이는, 거제 시민들의 시간과 기억을 품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몽이는 거제시의 오랜 역사와 기억을 상징하며, 머리에 쌓은 돌탑은 거제 시민들의 소원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살피는 부드럽고 다정한 마음을 몽돌과 같은 완만하고 귀여운 곡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몽몽이는 몽이의 친구 강아지로, 몽이와 몽돌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거제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길을 잃어 난처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머리에 돌탑을 쌓는 것을 좋아하고, 잘 되지 않으면 속상해 합니다. 몽돌과 같은 둥근 귀를 가지고 있으며 친근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거제시의 관광 안내 도우미이자 귀여운 강아지 친구입니다.

Character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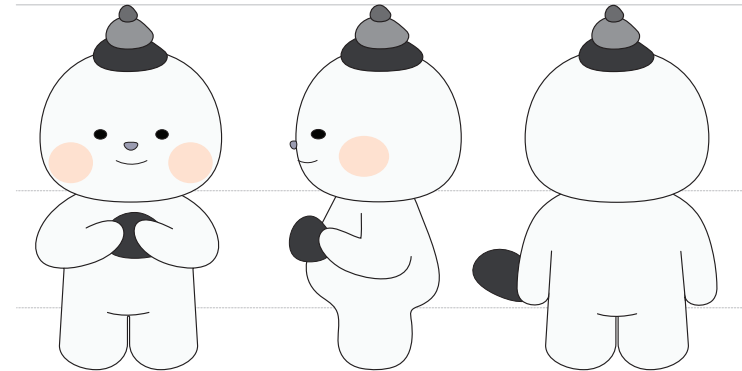
몽이

성격 둥글고 온화한 성격

취미 바다에 찾아온 사람들의 고민 들어주기, 사람들과 사진 찍기, 사라진 몽몽이 찾아다니기

좋아하는것 몽돌, 몽몽이, 유자

특징 머리에 돌탑을 쌓고 있다. 마음에 꼭 드는 몽돌을 언제나 소중 하게 안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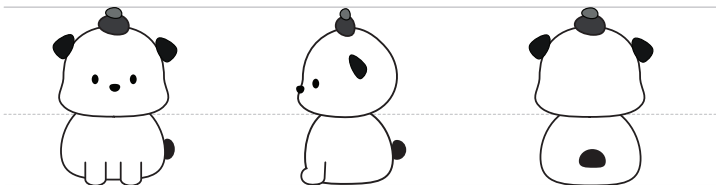
몽몽이

성격 호기심 많은 성격

취미 머리에 돌탑 높게 쌓기, 거제시 산책하기

좋아하는것 몽이, 바다, 동백꽃

특징 머리에 돌탑을 높게 쌓고 싶어한다. 늘 몽돌로 탑을 만들지만 가끔 무너진다.
거제시 곳곳에 출몰하며 길을 잃은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Character Application





Product

거제시를 홍보하는 다양한 굿즈와 홍보물에 활용 가능합니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시의 이미지를 전하고 행사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Alphonse Mucha.

: Art Nouveau and Utopia

19세기 말 아르누보 미술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던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는 누군가 새벽에 몰래 칼로 뜯어서 훔쳐가거나 암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작품 느낌을 충분히 살려, 현대의 알폰스 무하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작품을 떠올리며 꼭 하나 챙겨가고 싶은 리플릿을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작업물

TOOL 포토샵, 인디자인

KEYWORD 아르누보, 꽃, 타로카드, 여성, 고풍스러움, 화사함





Type A 화사한 장미

알폰스 무하 일러스트의 섬세한 선과 타로카드를 연상시키는 세로 이미지를 리플릿의 판형에 적용하여 일러스트 카드처럼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A타입은 꽃 시리즈의 하나인 작품 장미The Rose를 표지 전면에 보여주었고, 다른 작품들을 투명하게 곳곳에 배치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활용하였습니다.

COLOR

중심 일러스트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핑크색과 적갈색을 비슷한 비율로 배치하여 사용했고 배경색의 명도를 낮춰 표지의 화사함을 강조했습니다.

FRONT TYPOGRAPHY

Cafe24 Lovingu Alphonse Mucha

카페24 클래식타입 Regular 알폰스 무하

경기천년바탕 아르누보와 유토피아展, 2024.01

Pretendard Variable 정보 페이지 본문



안

가 사라'로 불릴
무하와 이
예술적
문가적인
그의



신비주의자

제4부에서는 영성론(靈性論)이 그의 예술적
철학과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주기도문을 사적으로 해석한 [르
파테(Le Pater)](1899)와 인간을 이끄는 영적인
힘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회화와 드로잉 등을 볼 수 있다.

애국자

30여 년 전 고향을 떠난 무하는
출판 조국을 위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염원하였다.
이 작품들 속에 나타난 여성들은 아르누보
양식의 포스터에서 보이는 세속적인 기쁨에
삼취한 여성과는 달리 사랑과 연민을 상징하는
슬라브 민족과 그들의 민족적 여신으로
승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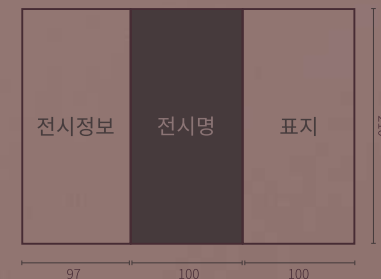
예술적 철학자

무하의 작품들은 이성, 지혜, 사랑으로
인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로서의 그의
반영된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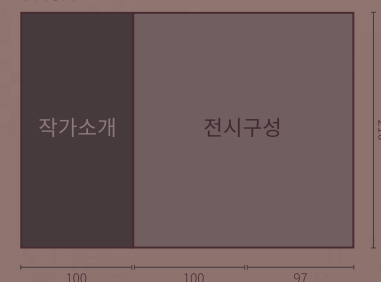
Art exist only to communicate a spiritual message.



FRONT



BACK



Type B 싱그러운 숲

B타입은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측면 상반신 구도의 일러스트와 푸른 톤 일러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담쟁이덩굴 Ivy 작품을 표지 전면에 보여주었고, 정보 페이지에 표지의 색채를 해치지 않는 꽃 이미지를 편집하여 요소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배경색 위에 노이즈 효과를 추가해 빈티지한 느낌을 의도했습니다.

COLOR

아이비 잎의 푸른색을 위주로 사용하고 명도를 낮춰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활용으로 차분함을 주면서도 일러스트를 강조했습니다.

BACK TYPOGRAPHY

ParkAvenue BT *Art exist only to communicate a spiritual message.*

국립박물관문화재단클래식 **소제목 파리의 보헤미안**

Gowun Batang 작가 소개





BANNER

표지에 알폰스 무하의 일러스트가 크게 배치되어 있어 홍보 배너로 제작하여 전시장 주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알폰스 무하는 귀족들만의 예술이 아닌 대중을 위한 예술,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전시 리플릿 디자인을 활용하여 고풍스러우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DAYMONS YEAR SALTY.

데이먼스이어는 곡 SALTY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과 쓸쓸함을 노래합니다.

슬픔은 가끔 우리를 비밀스러운 어항에 가두지 않을까요?

아티스트의 감성과 음악의 무드를 살린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편집하여 앨범 커버를 리디자인하였습니다.

개인작업물

TOOL 포토샵

KEYWORD 인디, 슬픔, 푸른색, 물속의 사람



DAYMONS YEAR SALTY.

잊혀지는 건 당연하단 걸 알면서도
나의 마음속 어딘가 저리죠
그대 떠난 날 밤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난 꿈속으로 도망갈 수 없었네
시간은 흘러 내 모습을 깎아내고
액자 속의 사진도 다 갉아먹겠조
원망은 없어요 그저 너무 슬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겨지겠조
지워지면 내가 잊혀지면 나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조차

기존 앨범 커버

아티스트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회 십자가 사진 이미지의 단순함과 추상성을 탈피하면서도 감성적인 느낌을 충분히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슬프지만 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Salty라는 제목은 소금처럼 짠 슬픔의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어항은 개인적 슬픔의 공간을 상징하며, 언젠가 이 어항에서 나와 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필터 효과를 이용해 수면의 빛과 반짝이는 비늘 같은 느낌을 함께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COLOR ● ● ●

푸른 톤으로 전체적으로 보정하여
곡의 차분한 분위기를 이미지로 담았습니다.

TYPOGRAPHY

Business Signature D *Sooty*
Futura MdCn BT DAYMONS YEAR





Art magazine Yejang.

서울예술대학교의 교지이자 예술 잡지인 예장은 연 3천 부 발행되어 교내·외로 배포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기사들을 수록합니다. 각 호마다 테마에 어울리는 원고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예장 36호 <숨바꼭질> 편집위원, 37호 <미로>의 편집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팀작업물

TOOL 포토샵, 인디자인

KEYWORD 예술, 숨바꼭질, 미로, 파스텔톤



주요 활동

편집위원 기사 <나를 가둔 나> 글

편집위원 기사 <지금은 예술 광고 시간입니다> 글, 편집

에세이 <후추맘 되기> 글, 사진

사진가 김종만 인터뷰 <끝나지 않는 로드무비> 글, 사진

이소연 교수 외고 <황혼의 유령들> 담당 편집

소설가 하성란 인터뷰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진

예장

서른여섯 번째



예장 36호 숨바꼭질

예장 36호는 숨바꼭질을 테마로 하여 예술에서의 '잡는 자와 잡히는 자'라는 속성에 초점을 두고 책을 엮었습니다. 표지로 사진과 학생의 졸업 작품을 허락받아 사용하였으며, 후면은 파스텔톤을 선택하여 표지 이미지와 어우러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편집위원 기획 기사 및 인터뷰, 사진에 참여하였고 기사 전반의 교정·교열 및 디자인 배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규격 A4변형(205*260mm)

표지 260g 양상블/내지 100g 모조지

후가공 무선 제본/무광라미네이팅

[illegible]

제출한 고지서 번호
제출 일자
제출 부서
제출인



The image shows a close-up of an open manuscript. The pages are filled with dense, handwritten text in a cursive script, likely from a historical period. The ink is dark, and the paper appears aged and slightly yellowed. The handwriting is consistent across both pages, with some variations in line spacing and word formation. The perspective is slightly angled, showing the gutter of the book where the pages meet.

끝나지 않는 로드무비
- 사진가 김종만 인터뷰



이런 시선, 관행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선'이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행'이란 어떤 것을 행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행'이란 어떤 것을 행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행'이란 어떤 것을 행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Wiederholung** ist ein zentraler Bestandteil der Lernstrategie. Durch das Wiederholen von Inhalten wird das Gedächtnis gefestigt und das Verständnis vertieft. Dies kann durch das Lesen, das Schreiben oder das Sprechen erreicht werden.

2. **Verständnis** ist ein weiterer wichtiger Aspekt. Es geht darum, die Zusammenhänge zwischen den verschiedenen Themen und Konzepten zu verstehen. Dies kann durch das Erstellen von Zusammenfassungen, das Diskutieren mit anderen oder das Anwenden der Kenntnisse in praktischen Situationen erreicht werden.

3. **Organisation** ist ein weiterer wichtiger Aspekt. Es geht darum, die Informationen in eine logische und strukturierte Form zu bringen. Dies kann durch das Erstellen von Karteikarten, das Erstellen von Zusammenfassungen oder das Erstellen von Diagrammen erreicht werden.

4. **Transfer** ist ein weiterer wichtiger Aspekt. Es geht darum, das Gelernte in anderen Kontexten anzuwenden. Dies kann durch das Lösen von Problemen, das Erstellen von Projekten oder das Anwenden der Kenntnisse in anderen Fächern erreicht werden.

5. **Reflexion** ist ein weiterer wichtiger Aspekt. Es geht darum, das eigene Lernen zu reflektieren und zu verbessern. Dies kann durch das Erstellen von Reflexionsprotokollen, das Diskutieren mit anderen oder das Anwenden der Kenntnisse in praktischen Situationen erreicht werden.

유령들



페이스북에서
예장을 검색해보세요.
교지「예장」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가둔 나

[illegible]

SWITCH ON

Portfolio

주요 활동

목차 기획 및 작성

수록 원고 전반 교정·교열

37기 편집위원 활동 보조

편집장의 말 글, 사진

소설가 편혜영 인터뷰 <어둠을 응시하는 시간> 글, 사진

미술가 안규철 인터뷰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사진

김금희 소설가 외고

<애완의 낮과 밤> 외 2편 달랑 편집

오규원 시인 10주기 특집 기사 <나무속의 긴 잠> 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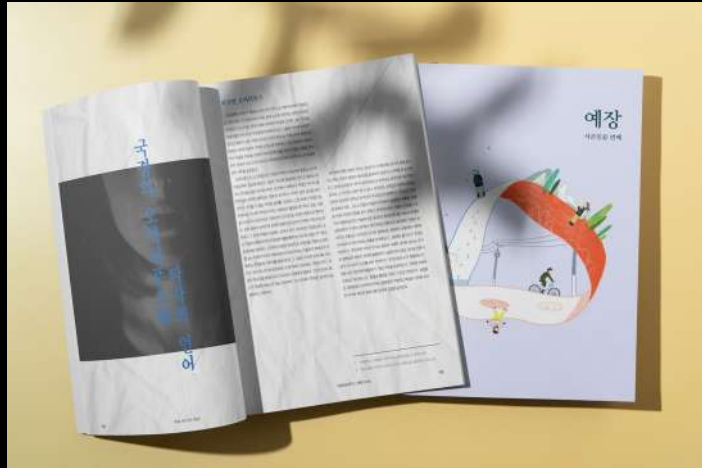
예장 37호 미로

37호 미로의 편집장으로 기획 총괄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개인성의 방에 갇힌 이들이 다시 예술로써 만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며 기사를 엮었습니다.

목차 구성, 기사 작성, 인터뷰 사진, 콘텐츠 기사 기획 등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Bookmaking



규격 A4변형(205*260mm)
표지 230g 아르테/내지 100g 모조지
후가공 무선 제본/무광라미네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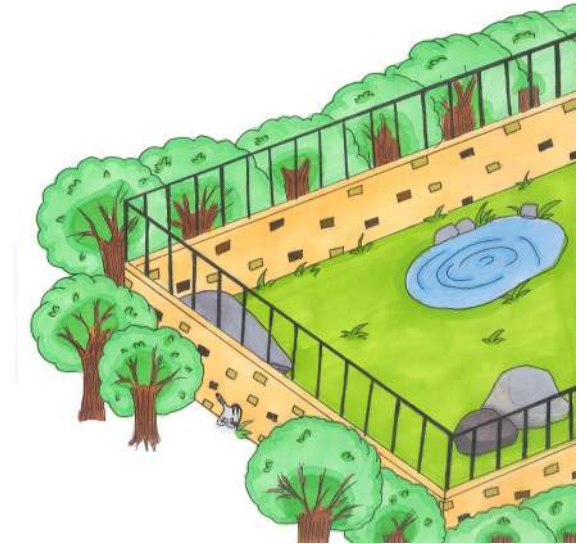
표지 및 내지 구성

37호의 표지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차상미 님에게 일러스트를 의뢰하여 표지 중심에 배치하였고, 표지 전체 배경색을 통일하여 속표지와 목차에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에는 '미로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별도의 제목을 붙이고 파트마다 어울리는 소재목을 넣어 잡지 테마의 인상을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Picture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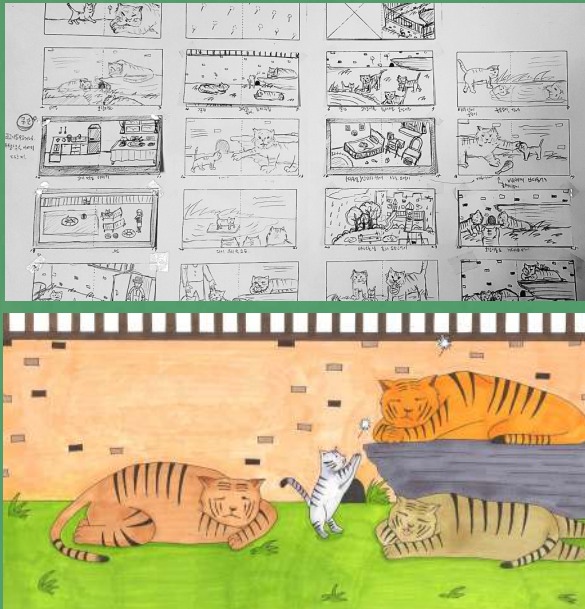
직접 그린 원화와 사진으로 구성된 그림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이미지에 담기지 않는 것을 풍부하게 나타냈고, 그림과 사진으로는 글에 생략된 것을 상호보완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스토리 구성에 따른 이미지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개인작업물

TOOL 컬러 마커, 포토샵

KEYWORD 그림책, 아기자기함, 동물, 그림자



스토리보드 및 원화 작업

고양이의 선물

자유롭게 떠돌던 고양이는 어느 날 동물원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만 바깥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호랑이들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때 바람이 대장 호랑이의 수염을 흔들고 갔습니다.
고양이가 꽃씨를 잡으려고 팔짝 뛰었을 때,
먼저 날아간 꽃씨가 대장 호랑이의 콧등 위에 앉았습니다.
에에에-취! 모두가 단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





제작 사양

규격 190*190mm

표지 스노우 250g

내지 아르떼 130g

기타 사양 하드커버 양장 제본

작업 방식

컬러 마카로 수작업하여 300dpi로 스캔 후

포토샵으로 보정 및 활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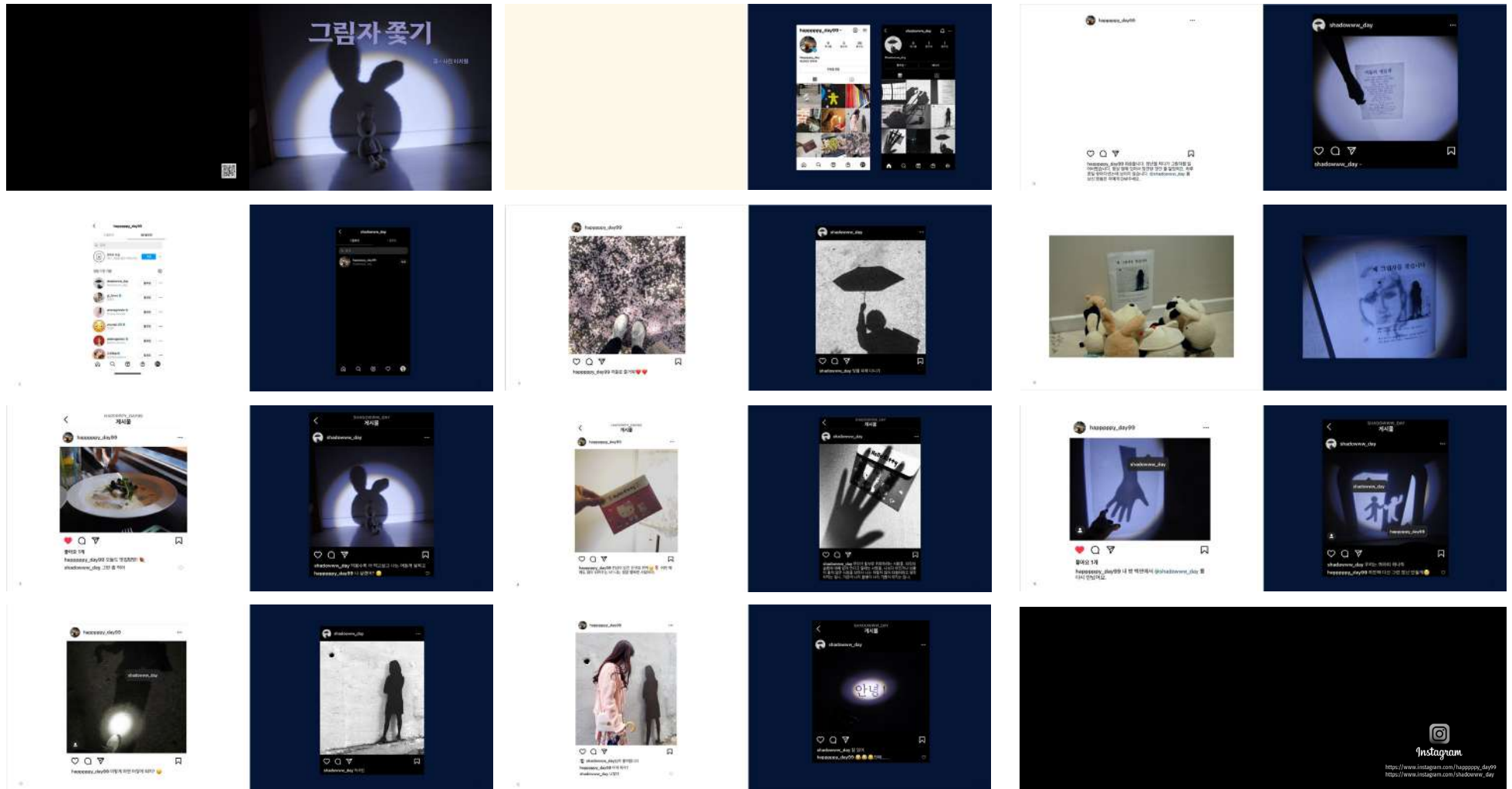


제작 사양

규격 127*168mm

표지 및 내지 스노우지

기타 사양 소프트커버 무선제본



'내 그림자에게도 SNS가 있다면?' 어떤 사람의 밝은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딥틱(Diptychs)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해 대비했습니다. 주인을 꺾고 사라지는데 다시 방의 벽면에서 발견됩니다. 인스타그램의 창을 프레임으로 하여 기존 SNS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발견하여 활용했습니다.

'내 그림자에게도 SNS가 있다면?' 어떤 사람의 밝은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딥틱(Diptychs)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해 대비했습니다. 주인을 꺾고 사라지는데 다시 방의 벽면에서 발견됩니다. 인스타그램의 창을 프레임으로 하여 기존 SNS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발견하여 활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제 계정을 만들고 직접 찍은 사진과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표현을 위해 OHP필름에 그림을 인쇄해 촬영하였고, SNS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일상 사진을 섞어 짙막한 그림책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제 계정을 만들고 직접 찍은 사진과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표현을 위해 OHP필름에 그림을 인쇄해 촬영하였고, SNS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일상 사진을 섞어 짙막한 그림책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Thank you for reading it.